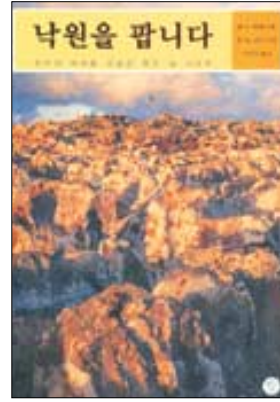


남태평양 나우루섬 초호의 풍경.



나원을 팝니다 (지구의 미래를 경험한 작은 섬 나우루)
존 M. 고디, 칼 N. 맥대니얼
이심민 역 | 여름언덕19800원

환경-자유시장경제 “공존은 없다”

눈앞 이익에 눈멀어 '미래'를 팔아버린 남태평양 작은 섬 나우루

몇 년 전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시대에는 상상과 체질만으로도 살아 갈 수 있었다. 자연이 파괴되지 않았고 생물들도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현재는 어떨까. 발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류가 자원을 개발하면서, 생태계는 파괴되어 지구의 숲은 3분의 1만 남았다. 사람들이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유해가스와 오염물질들을 방출해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다.

과학자들은 최근 지구가 6억년 중 여섯 번째 대멸종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증거는 널려 있다. 다만 인간의 수명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대멸종이 닥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가혹하게 닥치느냐는 것이다.

<나원을 팝니다(지구의 미래를 경험한 작은 섬 나우루)>에서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작은 섬 나우루와 지구의 문제점들을 빚어 말하며, 지구의 생성과 파멸, 인류의 개발로 지구가 처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한다.

나우루 섬의 이야기는 힘, 개발, 탐욕,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팔아버린 가슴 아픈 이야기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이야기다.

나우루 사람들은 서구인들에게서 글로벌 시장 경제체제를 배우고 자신들도 뛰어들었다.

나우루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지구 전역에 흩어진 여타 수

많은 사례들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파괴시킨 환경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자연과학의 관점에 비추어 이러한 제적들을 연장할 때 예고되는 것은 파멸이다. 이러한 무수히 많은 환경파괴 사례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세계관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문명을 뺏속까지 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제 우리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듯 하다. 우리 스스로 나우루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야만 한다고.

2000년 이상 나우루인들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생태적 안정을 유지하며 살았다.

그러나 1900년 농업에 필수적인 인공석이 발견되면서 나우루는 세계 시장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나우루를 점령한 강대국들은 인공석을 채굴하며 섬을 황폐화했고 그곳의 사람과 환경을 영원히 바꿨다.

1968년 나우루인들은 독립을 얻자마자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섬의 자연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남아 있는 40년 매장량의 인공석을 채굴하며 섬을 파괴할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 댓가로 섬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다.

과거 서로 수확을 도와주게 되면 자신의 수확물을 일정 부분 주고 서로 그 수확을 축하하며 몇날 며칠을 축제로 즐겨왔던 모습은 이제 사라졌다.

총이 반입되면서 일시적 분노로 추장을 죽이게 되고 전쟁이 일어났다. 밀려들어온 기독교는 나우루의 옷차림과 전통 관습을 일일이 간섭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약속된 40년이 지났다. 섬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버렸다. 나우루의 풍요를 보장하던 인공석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인공석을 팔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입하던 나우루는 이제 주변의 원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나우루라는 평화로운 섬이 인공석으로 인해 세계 시장이라는 지독히 이기적인 환경에 휩쓸려가면서 스스로의 장점과 특색이 파괴되고 짓밟히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며 저자는 말한다. "나우루의 문제는 바로 지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같다"고.

나우루는 환경과 맞서면서 변형하는 자유 시장 경제의 무서운 결과를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이나 환경 보존은 현재의 경제 원칙과 공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저자인 칼 N. 맥대니얼과 존 M. 고디는 미국 뉴욕 북부 펜셀러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의 생물학과 교수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病 받아들이기까지 7년이 걸렸다면 그녀는 ...

모든 여자의 이름은 최영숙 지음, 창비

오늘, 또 하나의 죽음과 나는 만난다. 아직은 보고 듣고 느껴야 할 것이 많은 43살에 한명의 딸과 죽음을 예상하는 서글픈 시를 남기고 떠난 그녀의 이름은 '최영숙'이었다.

병이 자신의 일부임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는 자그마치 7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고. 7년은 한 맺힌 여인이 되어 백련사 우물가에 대고 '아, 소리 내어' 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딸에게 세상 모든 엄마는 극복의 대상이지'라며 자신을 지배한 병마가 제발 딸만을 지배하지 않길 기도하는 모습이라... 마지막 시 '소 집는 날'에서는, 누군가의 '배부른 평화', '기름진 미소'를 위한 하나의 희생에서는 병을 넘어선, 능동적인 자기 파괴의 기운까지 느껴진다. 그녀의 죽음이 살아있는 이들에겐 하나의 축제가 되길, 병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일기를 태우는 그녀의 모습은 모든 것을 초월해 이제는 죽음조차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려는 담담함 같이 여겨졌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누구나 죽는다면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 그녀는 '거리에 알뜰으로 선 내게 돌을 던져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을 테니 말이다.

(quartz2, kyobobook.co.kr)



책속의 밑줄긋기

산 자와 죽은 동물의 영혼 달래는 수렵 신화

○...사머니즘은 인류라는 종의 자각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태어난 인간의 정신적 노력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구석기시대의 조상에게 있어 죽음은 최초의 스승이자 고통이었으며 그들이 알고 있던 생명이 다하는 끝자락인 동시에 불가사의함이 시작되는 경계였다.

종교란 신비로움으로 융성하지만, 그것의 시작은 수렵으로부터였다. 그들이 가장 숭배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동물들을 살기 위해 죽여야만 하는 사실을 인간의 입장에서 합리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수렵의 신화는 사냥에 대한 죄의식을 없애고, 산 자와 죽은 동물의 영혼 사이에 조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발전했다. 원시의 사냥꾼들을 몸져눕게 했던 중병은 평생 생활의 불길한 외해로서 광기와 절망을 불러오는 죽음의 조짐이었다.

죽음이라는 엄연한 이타에 익숙해지는 것과 병과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류 최초의 지적, 정신적 작업이었다.

-<시간 밖의 문명> 본문 178쪽에서, 웨이드 데이비스 지음, 무우수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지도자 어디 없소?

○...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일찍이 "가장 강한 종족은 오로지 변화에 제일 민감하게 적응할 줄 아는 종족이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변화에 대처할 줄 모르는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퇴출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미래의 지도자는 도덕성, 청렴성, 개혁성과 함께 얼마만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지니고 있는가가 더욱 큰 평가기준이 되리라는 점이다.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선 이 시대의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시대를 앞서가되,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은 중도적 인물 △진보적이되, 균형 감각을 지닌 양식 있는 인물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인물 △국익복지-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소신으로 어려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온 인물이어야 마로 지도자가 지녀야 될 필수적인 조건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기업공화국 자화상>본문 19쪽에서, 윤재철 지음, 한국정치인물연구소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하는 물론 12주전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상세히 볼 수 있고, 창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책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수를 활용한 토정괘(384괘 또는 144괘)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입해 볼으로써, 하락리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윤상철, 2006년 9월 증보.
※ 구성: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메뉴얼, 오운육기, 궁합, 육효, 인세 가능

전문가용 재미두수 CD

석망일 균사차 인명자장 등 각 학설에 따른 음선기능과, 재미두수 성요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망라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월간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풀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문과 육효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김재운, 2006년 3월 증보.
※ 구성: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메뉴얼, 명리, 기문, 육효, 육임의 명반, 인세 가능

전문가용 육임 CD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에 대해 총운 공명 가정 행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입문 123의 번들 CD를 보유했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윤상철, 2006년 6월 증보.
※ 구성: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메뉴얼, 기문 명반

하락리수와 재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